

▶ 달러/원 주간 전망

• 경기침체 우려가 촉발한 약달러와 원화 민감도

서울, 8월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움직임과 국내외 증시 동향에 주된 초점을 맞추며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범위는 1350-1380원이다.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경제지표를 받아든 시장은 경기침체라는 새로운 테마 아래 크게 요동치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재차 확인한 상황에서 제조업지표와 고용시장 악화를 맞닥뜨린 시장은 연준의 뒤늦은 정책 대응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용 발표 전 약 31%에서 71%까지 높여 반영했다. 한편,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은 116bp로 보고 있다.

전주말 뉴욕 외환시장에서 글로벌 달러 가치는 1% 이상 떨어져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작년 12월 말 이후 최저치로 미끄러졌다.

시장 일각에서는 허리케인 베릴 영향으로 미국 7월 고용 악화 수준이 과장됐을 수 있다면서 시장 반응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 신호탄을 쏜 데다 금리와 달러는 연준의 '빅 스텝' 금리인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며 시장의 새 방향성을 만들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같은 모멘텀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원화는 글로벌 달러 방향을 면밀히 따를 테지만 외인 주도로 코스피 조정폭이 커진다면 그간의 약세폭을 되돌리는 원화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수 있다.

한편, 환율이 1350원대로 급락함에 따라 수출업체의 추격매도 여부는 큰 관심이다. 지난 5월 환율이 1350원대로 떨어졌을 때 이들의 추격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세가 훨씬 활발했던 학습효과는 강하게 남아 있다. 하지만, 약달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추세 전환 가능성이 뚜렷해진다면 수급 주체들이 이전과 다른 패턴을 보일 여지는 열어둬야할 듯하다.

이번 주중에는 미국 7월 ISM서비스업 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 물가지표와 수출입지표도 살펴야할 변수다. 다만, 달러/위안이 달러와 보폭을 맞추며 7.16위안대로 레벨이 떨어진 터라 위안의 원화 영향력은 이전보다 다소 낮아질 수는 있다.

달러/원 환율이 그간의 레인지르 이탈해 모처럼 저점을 낮추고 있다. 글로벌 달러 향방이 핵심이긴 하지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촉발한 약달러에 원화가 얼마만큼 반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중동 리스크 확산 여부도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역내 수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살펴야하는 등 이번 주 환율은 전주의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주간 세계 5대 이슈

견조한 실적에도 글로벌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투자자들 불안이 진정되지 못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또 한번 변동성이 큰 한 주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티핑 포인트

영란은행이 지난 1일 금리를 인하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는 9월에 금리인하를 예고하는 등 전 세계 선진국 중앙은행의 약 절반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 최고치에서 완만하게 하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주식, 암호화폐, 채권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가운데 실적도 양호한 편으로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문제는 자산이 "완벽한 가격"으로 책정되면 실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또한 여름에는 더 많은 변동성이 나타난다.

미국 기업활동과 고용지표가 약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약한 경제를 반영하는 것인지, 이제는 돈을 빼야 할 때인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 더 살펴야 할 실적

지금까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이번 주에도 주목할 만한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다.

LSEG IBES 데이터에 따르면 S&P500 기업 절반 이상이 이미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2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일 예상했던 10.6% 증가보다 높은 수치다.

지금까지 78.4% 기업이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지난 4분기와 거의 동일한 수치다.

대부분 메가캡 기업은 이미 실적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며칠 간 중요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캐터필러, 월트 디즈니, 일라이 릴리,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등이다.

⊙ 中 험난한 경로

여러 중국 경제지표를 통해 불안한 회복세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지만 여전히 장밋빛 전망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는 서비스업 활동을 시작으로 수요일 무역지표에 이어 주 후반 소비자물가지표로 마무리된다.

최근 중국 데이터는 계속해서 우울한 전망을 가리키고 있으며 경제를 부양하려는 중국 정부의 긴박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하에 베팅 중이다.

특히 소비자 중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이후 정책 당국자들은 빈약한 내수를 강화하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금요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 중요한 결과

유럽에서 가장 밸류가 높은 기업인 노보 노디스크 NOVOb.CO는 수요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체중감량 치료제인 웨고비의 대성공으로 회사의 재산과 주주 수익률은 치솟았다. 3년 전 비만 방지 주사를 출시한 이후 시장 가치는 3800억 달러가 상승한 5720억 달러에 달한다.

노보 노디스크는 유럽 STOXX 600지수의 거의 4%를 차지하므로 실적은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

⊙ RBA정책회의

8월 5일과 6일에 있을 호주중앙은행(RBA) 정책회의에 있어 트레이더들은 약한 인플레이션 지표로 인해 연말까지 금리인하 리스크를 염두에 둔 포지션으로 전환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못하게 2년 만의 최저치로 둔화되면서 호주달러는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급등했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 소비 침체, 노동시장 약화로 이미 12년 만의 최고치 금리를 인상하기를 꺼려했던 중앙은행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트레이더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둔화될 경우 RBA가 예상한 인하 시기인 내년 중반보다 훨씬 빠른 1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경제 우려가 증시 랠리 위협

8월2일 (로이터) -

수 개월 간의 높은 금리가 미국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 우려가 다시 한 번 월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하락과 점진적인 고용 둔화로 인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믿었다.

이번 주 연준 회의 이후 9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전날 나온 경제지표가 미국 노동시장과 제조업 부문 약세를 보여주며 미국 증시의 급격한 매도세를 촉발하면서 나타났다. 가치가 높은 기술주들이 폭락하면서 나스닥지수의 하락폭이 7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거의 8%까지 확대됐다.

에드워드 존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양겔로 코카파스는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고 다른 모든 것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이야기였다"며 "하지만 이제 약간의 균열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로 2일의 고용 데이터와 이달 말의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같은 향후 발표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발표가 추가 약세를 시사할 경우 우려는 심화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캐터필라CAT.N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월트 디즈니DIS.N의 실적 발표를 통해 소비와 제조업의 건전성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제약사 일라이 릴리LLY.N와 같은 헬스케어 업계의 거물들의 실적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전날 선물 시장에서의 베팅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CME 페드워치 톨에 따르면 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할 확률을 25% 이상으로 반영해 전날보다 두 배나 높게 반영했다. 시장은 2024년 총 8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직전거래일에는 60bp가 조금 넘었었다.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용위마는 "직전일 (시장이)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고 느끼면서 편안함을 느꼈던 것이 지금과 9월 회의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현실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더 넓은 시장 지표에서도 불안한 조짐이 보였다. 월가의 공포 게이지로 알려진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3개월래 최고치에 근접했다. 중동 지역의 새로운 혼란에 대한 우려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한편 투자자들은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인기 있는 옵션인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업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가 트레이드얼러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헬스케어 섹터 SPDR 펀드XLV.P의 옵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풋과 콜 계약 사이의 일일 평균 잔고가 약 3년 만에 가장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유틸리티 섹터 SPDR 펀드XLU.P의 옵션 거래도 방어적 포지셔닝의 하락세를 보여주며 업종 강세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헬스케어 업종.SPXHC은 지난 한 달 동안 4% 상승했고, 유틸리티 업종.SPLRCU는 9%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SE 반도체 지수.SOX는 11% 하락했다.

물론 일부 투자자들은 이 데이터가 2024년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 이후 차익 실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벨 커브 트레이딩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빌 스트라줄로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고 앞으로 한두 달 동안 볼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조정과 가격 횡보"라며 "큰 그림의 상승 추세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엔비디아를 포함해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실적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변동성을 더할 수 있다.

NFJ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번스 맥키니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만큼의 경제 약세를 원하지만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미세한 선"이라며 "연준은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모든 것을 적절히 맞추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8월5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8월5일(월)

- ⊙ 한국은행: 2024년 7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 부채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10:00)

8월6일(화)

- ⊙ 한국은행: 2024년 제14차(7.18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8월7일(수)

- ⊙ 한국은행: 2024년 6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외환건전성협의회 (10:00)
- ⊙ KDI: KDI 경제동향(2024. 8) (12:00)

8월8일(목)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7월 수출입동향
- ⊙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22:30)
- ⊙ KDI: KDI 경제전망 수정(2024. 8) (12: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린 CLO* 도입 방안 (12:00)

8월9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09:00)
- ⊙ 한국은행: 2024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8월5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8월5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7월		51.2
8월5일	17: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확정치	7월	51.9	51.9
8월5일	17:30	유로존	셉탁스지수	8월	-8.0	-7.3
8월5일	18: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6월	0.4%	-0.2%
8월5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7월		56.0
8월5일	23:00	미국	고용추이	7월		110.27
8월5일	23: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7월	51.0	48.8
8월6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6월	-0.9%	-1.8%
8월6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MM	6월	0.2%	0.1%
8월7일		중국	수출 YY	7월	10.4%	8.6%
8월7일		중국	수입 YY	7월	3.3%	-2.3%
8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7월		1,231.5B
8월7일	17:00	중국	외환보유고	7월	3.240T	3.222T
8월7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8월2일 주간		201.2
8월8일	04:00	미국	소비자신용	6월	10.00B	11.35B
8월8일	08:50	일본	은행 대출 YY	7월		3.2%
8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6월	1,789.7B	2,849.9B
8월8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7월29일 주간	240k	249k
8월9일	10:30	중국	PPI YY	7월	-0.9%	-0.8%
8월9일	10:30	중국	CPI YY	7월	0.4%	0.2%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5일 (일)

-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6일까지)
-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CNBC 스퀘어박스 인터뷰 (오후 9시30분)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통화정책 및 경제 추이 관련 토론 참석 (6일 오전 6시)

8월6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 성명 (오후 1시30분) 및 기자회견 (오후 2시30분)

8월8일 (목)

- ⊙ 일본은행 7월30-31일 통화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오전 8시5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NABE 웨비나서 연설 (9일 오전 4시)

8월9일 (금)

- ⊙ 휴장국가: 싱가포르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BOJ, 다음 주 금리 인상 검토..채권 매입 절반 축소 계획 발표할 것

뉴욕, 7월31일 (로이터) -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일부 국가가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이 밝혔다.

그러나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동맹국의 선적은 제외되어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이에 따라 ASML과 도쿄일렉트론 등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으로 알려진 이 규칙은 중국의 가장 정교한 반도체 제조의 중심에 있는 약 6개의 중국 팹이 여러 국가로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받지 못하게 한다.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에는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된다.

로이터는 중국의 어떤 반도체 팹이 영향을 받을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수출 통제를 감독하는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 (달러/원 월간 전망 ①)-미·일 통화정책 확인 이후 고점 낮아진 정도..추세 전환 난망

서울, 8월2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와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 강세 등 대외 여건 변화에도 달러/원 환율이 추세적 하락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48.3-1391.2원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달러/원 환율은 BOJ와 연준 정책회의를 소화하면서 1380원대 박스권에서 이탈했으나, 기존 레인지 장세와 크게 다른 흐름을 보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 유가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경기 둔화 이슈도 부상하고 있어 아직 급격한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급적으로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가 달러/원 하단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부상한 이후 미국 대선 추이와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위안 약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달러/원 변동성을 다시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